

“**국민권익위 민원 빅데이터로 분석한**”

국민의 소리

국민권익위원회
2024년 5월 2주차 주간동향(5.6.~5.12.)

[2024.5.16.(목), 제766호]

이슈 키워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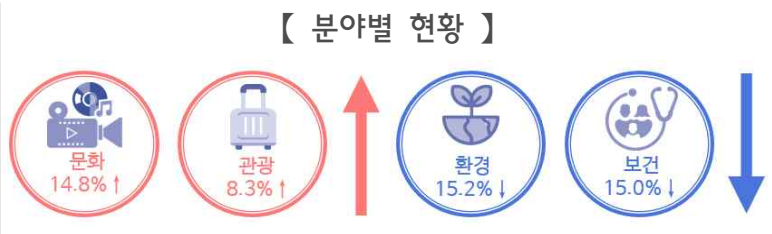
일반민원			온라인 여론		
순위	키워드	민원건수	순위	키워드	언급량
1	교통 단속 민원(불법주정차 신고 등)	80,802	1	특검(대통령 기자회견 관련)	22,294
2	○○시 ◇◇구(준공승인 반대 등)	1,116	2	민생(민생물가 TF 첫 회의 예정)	10,192
3	재개발(□□시 ♠♠구역 재개발 추진 요구)	1,026	3	국민연금(개혁안 처리 불발)	9,604
4	불법광고물(전단지, 현수막 등 신고)	1,011	4	의대정원	9,166
5	어린이 놀이터(GTX 환기구 설치반대)	543	5	대통령 기자회견	6,587
6	△△도 교육청(●●시 학군조정 철회 요구)	483	6	금리인상	5,294
7	경의중앙선 ▲▲역(조기 착공 요구)	380	7	안보(한국형 초음속전투기 개발)	4,785
8	아파트 붕괴(공사현장 지하 붕괴)	292	8	저출산	3,433
9	♠♠시 ▣▣지구(공사 소음 관련)	275	9	소비자물가(외식물가 3.0% 상승)	3,053
10	제2경인선(사업 조속 추진 요구)	217	10	대입제도	1,994

※ 일반민원: 국민신문고, 지자체 별도 창구로 접수되어 민원분석시스템에 수집된 데이터 분석결과(5.6.~5.12.)
온라인 여론: 문체부 제공 자료(5.3.~5.9.)

※ 5월 1주차 대비 순위 신규진입 키워드: [키워드] / 탈락 키워드: 소각장, 생활형 숙박시설 등

민원 동향

- 5월 2주차 민원은 261,037건(일평균 37,291건)으로 지난주(260,327건) 대비 0.27% 증가 ※ 안전신문고(60.9%), 국민신문고(20.2%), 서울 등(18.9%)
- 지역별로는 지난주 대비 대구(4.5%), 울산(3.1%)는 증가한 반면, 경북(5.3%), 경기도(5.0%) 등 감소
- 분야별로는 지역별 행사관련 민원 등 문화 분야 증가, 소각장 폐쇄 요청 등 환경 분야 감소



주요 민원

□ ☆☆☆시 ○○지구 생활형숙박시설 공사현장 지하 붕괴사고 관련 안전진단 요구(292건)

- ☆☆☆시 생활형숙박시설 공사현장 지하에서 붕괴사고가 발생해 해당 시설 수분양자들의 불안이 고조되는 상황
 - 수분양자들은 건설사, 관할 구청에서 선정하는 업체가 아니라 제3의 업체를 통해 면밀한 안전진단을 시행할 것을 요구

- **검토요청** 5월 3일 ○○지구 공사현장(생활형숙박시설) 지하에서 붕괴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아파트는 분양받은 사람이 직접 살면서 하자나 문제를 직접 알 수 있지만, 사놓고 수분양자가 거주할 수 없는 생숙의 경우, 숙박하는 사람이 하루 이틀 머물다가 가기 때문에 수분양자는 하자를 알 수도 인지 할 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만약 외국인들이 숙소(*호텔)로 묵다가 붕괴사고라도 나면 나라망신이며 결국 이 시점에 안전점검 지침을 적절히 내리지 못한 국토부와 ◆◆구청 또한 결코 그 책임을 면할 수 없을 것입니다. 때문에 ⚡⚡건설이 아닌 제3의 안전진단 전문 기관의 안전진단이 반드시 필요한 시점입니다. 당장 공사를 중단하고 건물 전체에 대한 안전 검사를 진단하는 적극행정을 간곡히 요청합니다. (5.8.)
- 뉴스에서도 보셨겠지만 2024.5.3.(금) 오후 2시경 ○○지구 생활숙박시설 공사현장 지하에서 붕괴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 붕괴사고로 작업 인부 3명이 다쳐 병원이송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사건 당일 자정이 넘어서도 계속 공사를 진행했습니다. 정부에서는 더 이상 큰 사고가 나기 전에 공사 중단하고 철저히 전수조사 해주시길 바랍니다. ⚡⚡건설이나 ◆◆구청에서 선정하는 업체가 아니라 수분양자협회가 선정하는 외부 업체를 통해 안전진단 정밀검사를 받아서 강력한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5.8.)

【주요 언론 보도】

신속 공사장 주차장 붕괴...분양 계약자들 공사중단 요구

2024년 05월 07일 23시 10분



YTN('24.5.7.)

해달라"

진교훈 경서구청장 "전문가와 해결방안 논의...전문가 판단 우선"
경서구청 "충대한 구조권할 없어...공사중단 상황 아니라고 판단"

(서울=뉴스1) 김도원 기자, 신원우 기자 | 2024-05-07 13:54 송고 | 2024-05-08 08:35 최종수정

🔍 댓글

🔊 가 련



뉴스1('24.5.8.)

□ ◎◎시 아파트 준공승인 반대 · 승강기 안전점검 요구 [1116건]

- ◎◎시 주상복합 아파트 사전점검 결과, 지하주차장 균열 · 누수가 발견되고 엘리베이터 오작동으로 간힘 사고 등이 발생
- 입주 예정자들은 준공승인을 하자보수가 완료될 때까지 미루고, 엘리베이터에 대한 추가 안전점검을 통해 안전보장 요구

- **검토요청** ♣♣ 아파트 입주 예정자입니다. 4월 27일 건설사의 일방적인 통보로 사전 점검을 진행하였습니다. 장장 4년을 기다리고 3개월 지연된다 하여 그마저도 믿고 기다렸는데 그 결과가 너무 참담하여 역장이 무너져 내립니다. 대부분 세대에서 100건 넘는 하자가 발생하였습니다. 사람이 짓는지라 완벽할 순 없다는 걸 감안한다 해도 균열은 물론 벽이 휘고 수직 수평이 맞지 않는 세대가 대다수인데 어떻게 믿고 들어가서 살 수가 있습니까? ♣♣ 건설에 하자를 문의하면 감리가 문제 없다 했다 감리는 구청에서 지정한 거라며 구청으로 책임 전가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시행사는 코빠기도 안 보이고 구청에서는 감리의 보고서만을 믿고 현장의 실태를 직접 감독해야 하는 의무는 저버린 채 방관하고 있습니다. 왜 모든 피해와 불안함은 입주 예정자들의 몫이어야 합니까? 5월말 준공승인을 강행하려는 건설사입니다. 하자가 완벽히 보수되고 안전이 확보될 때까지 우리 입주 예정자들은 준공승인을 반대합니다. (5.12.)
- 지옥같은 사전점검날을 또 다시 겪고 싶지 않은 마음에 글을 씁니다. 사전점검을 진행하여 방문하였으나 전체 엘리베이터의 50%만 가동이 가능한 상태였고 잦은 고장으로 인해 아수라장이 따로 없었습니다. 제가 탔던 승강기도 멈췄었고 승강기 내 인터폰으로 상황을 알려야 하는데 인터폰은 작동하지 않았습니다. 핸드폰으로라도 알려야 하는데 중계기가 부족했던 건지 핸드폰마저 신호가 잡히지 않았습니다. 다른 입주예정자분은 4번이나 승강기에 갇혀 있었고 이제는 승강기 타기가 두렵다고 합니다. 최소한의 안전도 확보하지 않은 무책임한 건설사는 승강기 탔만 합니다. 승강기는 검사결과 이상이 없어 허가를 받고 작동한다고 하였으나 다시 한 번 점검이 되었으면 합니다. 승강기의 철저한 안전검사 진행으로 입주 예정자의 안전을 보장해 주십시오 (5.9.)

【주요 언론 보도】

"붕괴될까 불안해요"..

!무슨일이?

경제나 기자 팀력 2024-05-14 05:05 수정 2024-05-14 05:05



아시아타임즈(24.5.14.)

"공사판인데 사전점검이라니"...
입주예정자를 뺐다

박영민(이음호) | 일석 2024-04-18 | 수정 2024-05-01 15:25

사전점검 이틀 앞둔 상태에서 아직 공사 완장
의미없는 사전점검에 입주예정자 뺐다 폭주
오는 21일 100세대 참가해 집회, 석발시 예고
"지체보상금 지급, 하자보수 시간 확보하라"



영남일보(24.4.18.)

알림판

1. 주요민원 검토요청 사례

‘주요민원 검토요청 사례’는 한 주간 국민신문고 등을 통해 민원분석시스템(www.pias.go.kr)에 수집된 민원을 모니터링하여 다량으로 증가하였거나 이슈가 된 민원과, 언론 모니터링을 통해 시의성 있는 민원을 발굴하여 관계 기관에 통보, 적극적인 조치 협조 등을 통해 사후관리되고 있습니다.

< 금주의 검토요청 사례 >

페이지	제목	민원번호	소관기관
2P	☆☆시 생활형숙박시설 공사현장 지하 붕괴사고 관련 안전진단 요청	1AA-2405-0269495	서울특별시 강서구
3P	○○시 아파트 준공승인 반대 · 승강기 안전점검 요구	1AA-2405-0415979	대구광역시 달서구

※ 국민권익위원회는 집단민원을 선제적으로 발굴하여 처리하기 위해 집단고충조사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러 기관이 관련되어 있거나 이해관계가 첨예하여 당사자 간 해결이 쉽지 않은 집단민원을 조정·중재하고 있으니 도움이 필요한 경우 연락(044-200-7418, 7321) 바랍니다.

2. 민원분석시스템 이용신청 안내

국민권익위원회는 국민신문고 민원·제안 및 외부게시판·트위터 등을 검색하고 최신 지능정보기술(AI)을 적용하여 분석이 가능한 차세대 민원분석시스템(www.pias.go.kr)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민원업무 기관 담당자, 민원발발 부서의 사업 담당자 등은 이용 신청을 통해 분석시스템을 업무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www.pias.go.kr(업무망)로 접속하셔서 공지사항의 ‘사용자 계정신청 안내’ 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인터넷망은 방화벽 포트 허용 조치를 위해 Helpdesk(070-4108-3625)로 문의 요망